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교회생활이 복된 이유      성경: 시편 20편

Tag: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20:1-9)

시편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6절은 다윗이 그 노래에 화답하는 것이고, 7절부터 다시금 백성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하고 있다. 다윗 스스로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긍심이 강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신 것을 확신했다.

물론 기름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왕위에 등극하기까지는 파란의 세월을 지내야 했지만, 그는 한 순간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뜻을 받드는 자로 여겨 충성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실로 다윗을 왕위에 앉히셨으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와 법궤를 소중히 여겼는데, 왜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교회생활이 복된 이유

###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 환난 날은 위기의 날이다. 물론 환난날이 아니어도 응답하신다.
- 그러나 환난 날에는 꼭 응답을 받아야 하는 날 아닌가? 사울은 그렇지 못해서 엔돌의 무당을 찾았다.
-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을 넘어가는 날이다.
- 누구든 넘어야 할 산은 있다.
- 처음 가는 길도 있고, 익숙한 길도 있으며, 서툰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다.
- 가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며 뜻 밖의 횡재를 하기도 한다.
- 그러나 대부분은 힘겨운 길이다. 그래도 결국 끝이 보이고 마무리가 된다.
- 특히 다윗은 다름 아닌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다.
- 죽음을 무릎써야 한다. 전략이 필요하다. 실력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가지고,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하고,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하고, 내가 짐을 져야 한다.

-물론 나를 돕는 자들도 있고, 나를 염려해 주는 자들도 있고, 나를 응원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

-가장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그러지 못하면 나는 망하게 된다. 전쟁해야 할 때 저주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전쟁을 통해서 승패를 가려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이다. 내가 떳떳하게 전쟁하는 이유다. 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전쟁하는 이유다.

-다윗의 전쟁은 승패를 가리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아말렉을 비롯한 진멸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판의 전쟁이었다. 여기에 자신의 정의감을 가미할 때 사울은 실패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생활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힘이 솟는다. 명령을 받들 때 힘이 솟기 때문이다.

##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불드시며

-성소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곳을 의미한다.

-다윗은 항상 성소와 시온을 하나님의 임제가 깃드는 곳으로 기록하게 여겼다.

-세상의 모든 성소는 실재로 하나님의 임제가 임하는 곳이다.

-모든 성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

-우리는 각자 선협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성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모든 강에는 샘 근원이 있듯이 모든 인생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지성소는 자신의 영혼 속에 있고, 성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있다.

-우리의 예배당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다.

###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와 번제는 오늘날 예배와 예물을 상징하고 있다.

-모든 소제와 번제라고 했으니, 우리가 항상 드리는 모든 예배를 뜻한다. 빠짐없는 예배가 소중하고, 지극한 정성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갈망하자.

-특히 우리의 헌신을 모아 우리의 환난날에 갚아 주시기를 기대하자.

###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는 그리 감동이 되지 않을지 모른다.

-어떤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소원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판단하실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바란다는 뜻.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신다.

-더구나 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꼭 들어하시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카페가 그런 소원의 결과임을 믿는다. (and 대형차)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

-우리는 환난 중에 승리한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우리는 전쟁이 심판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발전하게 되고,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숯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그는 심지어 사울도 소중히 여겼다.(다윗의 패러다임의 한계)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신앙 고백.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  
다

-하나님의 심판.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20:1-9)

-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